

## 제 1회 『애덤 스미스 입문』\_에이먼 버틀러

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2명

2019년 9월 22일 경남 창원시  
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

### 요약

• 한 국가의 부는, 중상주의자들이 믿었듯이, 자기의 금고 안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, 자기의 생산과 상업의 총량 - 오늘날 우리가 국내 총 생산(gross domestic product)이라 부르는 하는 - 것이다.

생산 및 상업의 총량이 GDP 이다. 특히 상업의 총량이란 부가가치라 할 수 있는 '교환으로 인한 양함'을 뜻한다. 자발적 의사로 인한 교환은 나은 결과를 낳는다.

• 자유로운 교환에서는 양쪽 모두 상태가 더 나아진다. 만약 자기가 교환으로부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무도 교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수출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수입품도 우리에게 중요하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없다. 참으로, 만약 우리의 고객들이 부유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다.

• 상업에 대한 규제들은 근거가 없고 반생산적이다. 번영은 세금, 수입 관세, 수출 보조금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특혜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.

상업에 대한 규제들은 대부분 사회적이다.

-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은 분업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. 막대한 산출량 증가는 생산을, 각각이 전문가 손에 의해 착수되는, 많은 작은 작업들로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다. 이것은 생산자들에게 투자를 위한 잉여를 남긴다.

분업은 시장이 있어야 가능하다. 분업 이전에 자본 축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 시장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정부(법, 공권력, 정부)를 통해서 보장 받는다. 약탈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.

- 한 나라의 미래 소득은 자본 축적률에 달려 있다. 더 나은 생산 과정에 투자되는 것이 더 많을수록, 미래에 더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.

-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있을 때, 시장 체제는 자동적으로 가장 긴급한 필요에 계속 집중되어 있다. 물건들이 희소한 곳에서는,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. 그것들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이윤이 있고, 그래서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.

- 자유로운 교환이 있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 경쟁 시장이 있을 때, 번영은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. 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는 방위, 사법 그리고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. 자유와 자기 이익은 혼란에 이르지 않고 - 마치 '보이지 않는 손(invisible hand)'에 이끌리듯 - 질서와 조화를 낳는다.

- 기득 이해관계자들은 자기들 자신에게 이롭게 시장 체제를 왜곡시키는 데 정부 권력을 사용한다. 고용주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, 사람들에게 특정 직업들을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과 같이, 경쟁을 억누르는 규제들의 통과에 노력할지 모른다.

- 세금들은 소득에 비례해야 하고 확실해야 하며 납부하기 편리해야 한다. 그것들은 수금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고,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, 탈세를 조장할 만큼 그렇게 부담되어서는 안 되고, 세리들의 빈번한 방문들을 필요로 해서 안 된다.

•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고난 '동정(sympathy)'(혹은 공감(empathy))을 가지고 있다. 이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온건하게 하고 조화를 보존할 수 있다. 그것은 또한 행동에 관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와 인간 미덕의 원천이기도 하다. 인간성은 광신자들과 몽상가들의 거들먹거리는 이성보다 조화로운 사회의 창설에 더 나은 안내자가 된다.

인간은 조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. 그 조화는 공감을 얻기 위함이며, 이는 인간이 고대로부터 무리생활을 하고픈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.

## 서론

### 개빈 케네디

스미스 이전에는, 정치 경제학은 대외 전쟁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권자와 국가를 금 및 은괴로 부유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. <국부론>은 '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(annual product of land and labor)'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학의 중점을 바꾸었다.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었다. 그것은 부의 본질과 부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한다.